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시민들이 이제 NYS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X" 성별 표시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

성인식법 시행의 역사적인 단계, 프라이드 먼스에 맞춰 시행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려는 주의 노력 지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들이 주 전역의 모든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 학습자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의 신분증에 성별 표시로 "X"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정부의 성인식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DMV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들을 위한 보호를 확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성별을 바꾸고, 출생 증명서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프라이드 먼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싸움에서 또 다른 승리를 나타내는 이 역사적인 변화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반영하는 신원 문서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뉴욕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가치,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아마도 다른 어떤 주 정부 기관보다 DMV를 통해 직접 그들의 정부와 연락하기 때문에, 모든 뉴욕 시민들을 대표하는 신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옵션을 구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옵션은 수많은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Maria Imperi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필수적인 신분증 서류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반영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의 중요한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높이고 뉴욕주에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최고 다양성 책임자 대리인 Priya Nai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이자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으로서, 이 행동은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별 표식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가 저를 저로 인정하고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포용적인 변화를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님, 자동차부, 논바이너리 및 트랜스젠더 옹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주들이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학습자 허가증, 비운전자 신분증을 소지한 뉴욕 시민은 사진 ID의 성별 표시를 'M'이나 'F'에서 'X'로 변경할 수 있으며, NYS 사진 ID를 처음 신청하는 시민은 '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신청서,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MV-44\)](#)을 작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분증 서류를 변경하기 위해 DMV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고객은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트랜잭션을 통해 성별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ad Hoylm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정부에 의해 그들이 누구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인식법 이전에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여행, 취업, 심지어 학교에 갈 때 필요한 신분증을 얻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TGNB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GRA가 발효되는 6월 24일, 모든 성 비합치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그리고 이성간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퀴어, 특히 트랜스젠더 젊은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 Schroeder DMV 커미셔너, 그리고 이 중요한 법의 시행을 감독해 준 제국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람다 법률 선임 변호사인 Carl Char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 주에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성 비합치자들을 위한 생존 평등 투쟁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Sander Saba를 대신해서 람다 법률 사무소의 노력 덕분에 그리고 성인식법의 제정 덕분에, 뉴욕주는 마침내 차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에 대한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성 비합치자 뉴욕 시민들은 이제 뉴욕에서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정확하고, 국가가 발행한 신원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오늘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우리는 뉴욕의 Mx. Sander Saba, 논바이너리 및 트랜스젠더 옹호자, 그리고 우리의 법률 회사 프로보노 파트너인 O'Melveny Myers LLP을 비롯해 오늘을 가능하게 해 준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는 또한 Hochul 주지사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들을

위해 상황을 바꾸어준 뉴욕 자동차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고인 Sander Sab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다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뉴욕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존엄성을 가지고, 국가가 발행한 정확한 신분증 덕분에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원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발표는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해 싸우고 2023년 제정된 주정부 예산을 확보한 Hochul 주지사의 [주요 발표](#)의 일환입니다. 주정부 예산에는 보건부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1,350만 달러와 연간 성소수자 의료 및 인적 서비스 기금을 두 배 이상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예산안에는 성별 또는 성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 양식에 개인에게 성별 또는 성을 논 바이너리 'X'로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주 기관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포함됩니다. 기관들은 또한 데이터 수집 시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정 예산은 또한 트랜스젠더 뉴욕 시민들이 그들의 이전 이름을 남기지 않고 혼인 증명서에 있는 이름이나 성별 지정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